

팀NO : 2018 -1팀

2018 단기 선교팀 신청서 (2)

선교위원회 확인

1. 국가팀명 : 미얀마국 (1팀) 공항 : 양곤 *항공권구매: (자율 · 교회)

2. 사역지 : 만달레이 피지타곤 지역

3. 사역기간 : 2018년 1월 29일(월) ~ 2월 6일(화) / 8박 9일

삼성

132222
(#고구)

이영준 12/17

김영환

12/24

NO	직책	직분	성명(한글/영문)		교구	CMTC	교적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주소	E-Mail
1	팀장	안수집사	문연식	Moon Yeon Sik	13		93-1008					
2	총무	은퇴 안수집사	임채봉	Lim Cher Bong	13		92-208					
3	서기	권사	김금숙	Kim Keum Sook	13		90-117					
4	회계	권사	박숙희	Park Sook Hee	13		82-739					
5	의료	권사	이광주	Lee Gwang Ju	13		89-841					
6		권사	이영순	Lee Young Soon	13		4470					
7		권사	석귀수	Seok Gwi Soo	13		908					
8		권사	김성애	Kim Seong Ae	13		88-69					
9		성도	이수빈	Lee SUBIN	3		94-282					
10		목사	강성은	KANG SUNG EUN	1		14-0112					
11												
12												

- CMTC선교훈련 및 선교 수련회는 출발 5주전까지 필히 수료하여야 출발할 수 있습니다.
- 비자를 받는 팀은 여권과 함께, 비자를 받지 않는 나라는 여권을 COPY(B5 SIZE)하셔서 함께 제출하여 주십시오.
- 사진은 반드시 6개월 이내 이거나 여권과 다른 사진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 E-Mail Address는 팀장, 총무, 서기, 회계만 기록요망.

교구(부서)장

소 감 문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선교를 떠날 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준비하고 계실지 그 도우심의 손길을 의지하며 기대하게 된다.

오전에는 어린이 집회를 알리는 피켓을 들고 축호전도와 심방을 다녔는데 거의 대부분의 주민들은 그곳에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오후에는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학생들을 인도하고, 찾아오는 어린이들을 맞이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의식적으로 눈길을 피하거나, 오토바이로 먼지를 일으키며 지나가는 등 노골적인 불만을 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많은 어린이와 학생들이 2층에 있는 예배당으로 뛰어 올라간다, 그리고 이어서 들리는 힘찬 찬송소리와 지도하는 선생님, 권사님들의 힘차고 낭랑한 목소리가 들린다. - 급하면 한국말이 튀어나오기도 하지만.

천지창조 예수님의 일생 등 준비한 교제 색칠하기와 만들기, 주기도문 사도신경 암송, 현지목사님의 전도문장 해설 등, 이에 어린생명들은 관심 어린 눈으로 열심히 따라하며 호기심을 가지고 익혀 나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맞서기라도 하듯이 자녀들이 어린이 성경학교와 주일예배에 참석한 것을 뒤늦게 알아챈 엄마들이 중간에 찾아와서 가기를 싫어하는 아이를 억지로 끌어내 귀를 비틀어 때리며 끌고 간다, 끌려가면서도 그냥 가는 것을 못내 안타까워하면서 뒤를 돌아보는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다.

주일예배시간에도 엄마들이 와서 자녀들을 끌고 가고,

끌려가지 않으려고 울먹이면서 예배당 안쪽으로 도망가는 아이들.....

이 모습이 4~50년 전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며 희망을 갖는다. 주여 이곳 미얀마에 대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와 방법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전한다,

주님오실 그날까지!

주여 우상숭배로 척박한 미얀마 땅이 복음으로 거룩한 땅이 되게 하소서

미얀마 1팀

팀장 문연식 집사

박경원

2가

주님이 함께 하신 선교

(미얀마 1팀 임 채 봉)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창50:20

선교를 왜가야 하나? 조용히 나에게 물어 본다.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 그러나 그것 보다는 나 자신을 위해서라는 것이 솔직한 생각이다. 선교의 현장에서 생생한 하나님의 존재를 체험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선교를 생각하면 나의 영혼이 풍성해 지고 용기도 생기기에 이번 선교에도 기대하며 준비했던 것 같다.

미얀마 만달레이 피지타곤 뽀엘교회! 우리교구가 기도하며 지원하는 교회이다 양곤에 가서 8시간 고속도로를 달려가 도착한곳에 있다.

뽀엘교회는 아직은 적은 인원만이 모이는 교회지만 불교가 90% 정도인 나라에서 붓짐을 지고 전도하러 다니던 파우크목사를 만나면서 시작 되었다.

이번 선교중에 한 가정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이혼을 당하고 친정남동생과 파지를 주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가 여섯 명이나 있고 생활이 말이 아니었다. 옆친데 덮친 격으로 지난 장마 때 아이 한 명을 잃는 일을 겪는 등 어려움이 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그 어려움 중에도 무슨 믿음이기에 그는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인지 부디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고 승리하여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셨다는 증거가 많이 나타나는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기도드린다.

기독교의 불모지인 미얀마에서 붓짐을 지고 다니며 복음 전하는 목사님을 만난 것도 기적이고 예수 믿는다고 이혼 당하고도 믿음을 지키는 여인을 만난 것도 기적이 아니고 무엇인가?

편하게 교회 다니다 자칫 메너리즘에 빠져 아무 감동도 없이 신앙생활하기 쉬운 나에게 이번 선교도 색다른 도전을 주는 선교였다고 생각된다.

소감문

주님!

무엇보다도 영혼을 지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외안마 반란레이 지역에 벨렌회를 뜻이 있는 사위이고 그 영혼들을 만나 찬양과 율동 찬양을 전하고 소리 불어 베푸는 일을 사랑합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영혼들은 몇가장 뿐이긴 하지만 부름을 받아들이고 베마복은
베침은 하나 주님의 사역은 오직 주님께 맡기고 영혼들은 증거자로
영혼들은 주님의 아들로 품고 울며 기도하 히서야 한때있었 것입니다.

한영혼이 누룩처럼 보지 그 땅이 주님의 나라로 확장된 때 까지 기도하
히서야 그 나라와 그의 이름 구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 불들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환경속에서 한영혼이 예수님을 믿는 다는 이유로 이혼을 당하고 6년
와 10년생 여동생 까지 폐지를 주위 생계를 꾸려가는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러함에서는 그 영혼의 영혼을 보시고 그 외안마 땅이 30배, 60배로 갹신이
맺어지리라 믿습니다.

반란레이 영혼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 할 것입니다

지난 모든 시간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영혼을 위해

【별표 7-2】 (2004.12.15 개정)

팀장 평정등급 배분기준

직 위	부 문	직무 특성	단위 조직수	S(탁월)	A(우수)	B(보통)	C(미흡)	D(불량)	비 고
				10%	20%	40%	20%	10%	
팀 장	영 업	지원	9	1	2	3	2	1	
		사업/현장	18	2	4	6	4	2	
		소계	27	3	6	9	6	3	
				11.1%	22.2%	33.3%	22.2%	11.1%	
	생 산	지원	18	2	4	6	4	2	
		사업/현장	7	1	1	3	1	1	
		소계	25	3	5	9	5	3	
				12%	20%	36%	20%	12%	
	낙 농 지 원	지원	4	-	1	2	1	-	
		사업/현장(A)	-	-	-	-	-	-	
		사업/현장(B)	9	1	2	3	2	1	
		소계	13	1	3	5	3	1	
				7.7%	23.1%	38.5%	23.1%	7.7%	
	경 영 지 원	지원	8	-	2	4	2	-	
		사업/현장	6	1	1	2	1	1	
		소계	14	1	3	6	3	1	
				7.1%	21.4%	42.9%	21.4%	7.1%	
	전 무 직 속	지원	3	-	1	1	1	-	
		사업/현장	4	1	-	2	-	1	
		소계	7	1	1	3	1	1	
				14.3%	14.3%	42.9%	14.3%	14.3%	
합 계	지원		42	3	10	16	10	3	
				7.1%	23.8%	38.1%	23.8%	7.1%	
	사업/ 현장		44	6	8	16	8	6	
				13.6%	18.2%	36.4%	18.2%	13.6%	
	합계		86	9	18	32	18	9	
				10.5%	20.9%	37.2%	20.9%	10.5%	

하나님 나라 기쁨들이 되리라 기대하며

미얀마 1팀.

미얀마 만달레이 피치라곤에 있는 13교구가 세운 벨엔교회에 처음으로 선교사역이 동참하게 되었다.

이제껏 사역은 축호전도와 노방전도로만 이루어졌지만 여기는 교회가 세워져있기에 어린이 사역 성경학교 위주로 사역을 준비하여 갔다.

오전에는 축호전도와 노방전도로 어린이와 주일학교 복음을 전하며 성경학교를 홍보하고 오후에는 성경학교를 열었다.

터킨 예수화 편고 칠판에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쉽없이 아이들에게 알려주었고 '예수사랑하심은 나의 죄를 씻기는 ...'

준비한 찬양들을 계속 반복하여 부렸더니 아이들이 우리들보다 더 큰소리로 찬양을 잘 부렸다.

주기도문대우기. 성경의 9가지 열매 대우기 너무도 열광적으로 배워가고 익히는 모습에 너무 감사하고 기뻐다.

원지창조. 예수님의 생애 영화도 집중해서 장감상은 했다.

많은 아이들이 두시간 전부터 와서 기다리며 열매나 옷는 모습으로

종아하는 아이들 나역시도 어렸을때 교회에서 성경학교 한다고 하면

맛있는 ^것 먹으러 놀아갔다가 지금은 주일학교에 소수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것처럼 저 아이들도 지금은 코리아 사람들이 와서 맛있는것도

주고 선물도 주고 찬양하는 그 모습에 흥미심으로 참여하지만

언젠가는 저들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정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되찾아 기대하며
오늘도 주님께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 드린다.

“더킨예슈하 떤고 칫바레.”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이 한마디 말을 꺼내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한번 큰 사랑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부족한 저를 주의 방식대로 채워주시고 그 전지전능하심에 끊임없이 놀라고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합니다. 저는 이미 주의 은혜를 알고 사랑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곳에는 이를 깨닫지 못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불쌍한 영혼들에게 과연 내가 조금이나마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더 많은 영혼들을 더 가까이 감싸 안아주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는지 자꾸 미얀마 아이들의 얼굴이 아른거립니다.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들은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에 허덕이고 따뜻한 사랑에 목말라있습니다. 영적으로 척박한 땅을 밟을 날이 또 제게 있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성령이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축복받은 삶인지 전해줄 수 있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곧 혹은 언젠가 다른 땅에서 주의 복음을 전할 누군가에게도 전합니다. 꼭 한 영혼 한 영혼 더 가까이 안아주세요. 마지막으로 제 입에서도 이 한마디가 지금보다 자연스레 나올 수 있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13교구 / 팀 이연아 이광주 천사

안녕하세요 온성도들 온종현교회 모두 기도해 주시고
우사리 잘 가지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순종하라고 보내 주셨는지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수 없고
멀리 비행기 타고 갈수 없고 부족하고 머리 숙은
죄인이고 고개조차도 들수 없는데

해마다 가지만 오고 가고 그발거름도 지켜주시고
아무사고 없이 아프지 않고 모자라고 부족하~~지만~~한
이종을 보내 주심을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가정마다 다닐면서 베풀어 주는 어운했지만
그래도 반갑게 맞이하고 물이라도 주는 그토록
너무 감사했어요 치악한땅 그래도 우리나라처럼

정미 많아서 눈코만 다룬지 정말 마음 쏙쏙이 드는 다 있고요

어느 가정은 다닐때만 아이들만 있고 초라한 모습들이
아프고 자식은 낳아서 기워 봐지만 한쪽 마음이 너무 아프고
슬퍼요 어서 우리대한민국처럼 십자가를 세우고 예수님 만나고
기쁜아침이 되으면 하염없이 기도해요 오로지 마음으로는
이이연아가 정말 주님이 오시고 세워지는 교회 곳곳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찬양하고 우리와 함께 잘 살고 잘 먹고
아프지 않고 기도 하는 이연아가 되길 두손 모아 기도합니다